

세금까지 떠안은 '연좌제' 풀린다

건설사에게 명목회사 등 사업시행자의 빚더미도 모자라 세금까지 부과했던 '연좌제' 식 세금규제가 드디어 풀린다.

시행자의 도산으로 공사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출보증 손실에 세금까지 떠안아야 했던 업계의 3중고가 해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최근 개정된 세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15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에 나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을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세법상 세무

공사비도 못받고 대출보증 손실까지 업계 '3중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24일 공포·시행키로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손금산입이 되는 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비롯, 건설사가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의 유통화와 관련해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로 규정했다.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행정자산의 운영사업시행자도 포함했다.

따라서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건설사가 대출보증을 제공했다더라도 시행사가 부도 및 도산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관해서 만큼은 부담의무를 덜어

낼 수 있게 된다. 또 그로 인한 손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역물한' 법인세 손실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사는 시행사를 통한 개발·분양 등 PF사업 및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대출 등 각종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을 서야만 했다. 이는 관례나 다름없었고 당장 회기적으로 개선되긴 어려운 문제기도 했다.

대다수 시행사는 영세 업체인데다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 등 금융기관은 건설사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적어도 시행사 도산 등 사업추진에 문제

가 생겼을때 건설사가 부담해야할 손실은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공사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보증에 따른 빚까지 대신 갚고, 관련 세금까지 떠안아야 했던 이중, 삼중의 피해는 막을 같이 생긴 것이다.

건설업계도 비롯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반색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건설사마다 '물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행사 대출보증을 썼다가 큰 손실을 봤는데, 이제라도 규제가 풀려 다행"이라며 "각종 개발 및 투자사업 추진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최근 2년 부동산경기 호황이 도래하기 전에만 이런 규제가 풀렸다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었을텐데, 시장침체가 우려되는 시점에 제도개선이 이뤄진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노동조합은 6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45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300여 명의 대의원과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직원들에게 희망 주는 노조 건설을"

전북은행 노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전북은행노동조합은 6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45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임용택 전북은행장을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등 각 자부 산별위원장 및 300여명의 대의원과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제44년차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 45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18대 노동조합 집행부와 위원장은 출범 3년 차를 맞아 초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아 진심이 통하는 유종의 미를 거둬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중진공, 신규사업 도전하는 중소기업 지원강화

사업전환 기업에 정책자금·컨설팅·세제혜택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신규사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진공 전북서부지부는 2017년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신청을 받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서부지역의 조선, 해운, 철강업종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을 통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은 중소기업이다.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전환 대상 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이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전환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한다.

또 지난 해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전환지원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자금 지원 외에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지원도 돕고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사업전환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해 314개 업체를 대상으로 1250억 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신기철 중진공 전북서부지부장은 "사업전환지원자금이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등으로 침체돼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영위업종 지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전북서부지부를 방문해 사업전환계획을 진행해야 하며, 상담진행 후 안내를 통해 중진공에 사업전환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전북서부지부(063-460-9822)로 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중견기업 '후불형 R&D' 지원

전북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책임성 강화 및 성과중심의 연구개발(R&D)평가'를 통해 중견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후불형 R&D'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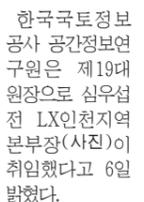
이번 사업은 기업이 R&D 재원을 선 투입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정부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 여부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의 새로운 기술개발 프로그램이다. 정부 R&D를 '지원이 아닌 민간투자를 연계한 성과 기반'의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의 자기주도 R&D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상용화(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예산 투입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의 경우 60개 수출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정부와 민간이 1:1 매칭(민간 50%, 정부 50%)으로 지원한다.

정부출연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민간부분 포함시 총 사업비 10억원)하며, 기술개발 시작 시점에 총 사업비의 5분의 1을 준 뒤, 기술개발 종료 이후 R&D 결과물의 상용화 수준(매출, 수출액 등)을 따져보고 나머지 5분의 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재용 기자

심우섭 LX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 취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은 제19대 원장으로 심우섭 전 LX인천지역본부장(사진)이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심우섭 원장은 강원 영월 출신으로, 청주대학교 지적

학과, 청주대학교 행정학 석사, 경일대학교 공학박사를 각각 마쳤으며, LX지적연수원 교수, LX제주본부장, LX인천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지적제도 및 공간정보와 관련한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간정보 분야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오픈

이스타항공은 6일부터 신규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을 오픈한다. 인스타그램 공식계정(@eastarjet_official)은 인스타그램과 이스타항공을 합친 '이스타그램(Eastagram)'이라는 별칭으로 운영된다.

또한 '여행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다'를 테마로 이스타항공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잠재고객들이 함께 소통하는 채널로 운영되며, 이스타항공 취항지 사진과 여

행정보, 마케팅 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스타그램 오픈을 기념해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스타항공 인스타그램(@eastarjet_official)을 팔로우 한 뒤 축하 댓글 및 게시물 공유(리그램)를 한 회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내선 왕복 항공이용권, 기프트콘 등을 증정한다. /인재용 기자

김준채 농어촌공 전북본부장, 소통공감 토론회

한국농어촌공사 김준채 전북본부장은 6일 영상회의를 활용해 지역본부와 사업단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승 사장을 비롯해 전국 9개도의 지역본부와 화안사업단 등 7개 사업단이 각 지역의 영상회의장에서 참여했다.

김준채 본부장은 전북본부 경영방향과 관련해 "2017년 경영목표를 도전적

으로 설정해 전 경영분야에서 10%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생산기반·용수관리·지역개발사업을 적기에 집행하고 농지은행 사업을 상반기에 80%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자체 사업수주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재용 기자



BUAN 600th Anniversary
1416-2016

부안 정명 600주년 행복부안! 천년도약!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